

대학생 문화의 변화와 구성원의 적응

김혜숙

아주대 사회과학부 심리학 전공 교수



캠퍼스의 풍경이 2~3년 내에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부쩍 느끼게 된다. 우선, 학생들—특히 남학생들—의 걸모습이 눈에 띄게 다양하고 분방해지고 있다. 남학생들 중에는 노랗게 물들인 긴 머리에 목걸이는 보통이며 귀고리도 흔치않게 눈에 띈다. 반바지를 입거나 모자를 쓰고 수업시간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신경 쓸 거리도 되지 못한다. 캠퍼스 내에서의 학생들의 행동도 이제는 거침이 없다. 캠퍼스 커플들은 '연인 사이'임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다니며, 아직은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는 드문 일이기도 하나 여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흡연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일도 늘고 있다. 한 마디로 학생들은 자신

의 개성과 감정과 취향을 움츠러들거나 눈치보는 일 없이 당당하게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변화는 물론 걸모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강의시간에 학생들의 태도에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변화가 느껴진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더 꼬박꼬박 참여한다든지 학점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경쟁적이라든지의 변화도 그렇지만, 강의를 진행하면서 내가 관찰하게 된 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 변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집단작업을 점점 더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내가 전공과목으로 강의하는 집단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부분이 '집단'에 대해서이

다. 또한 동양인의 사회심리가 서양인의 그것과 다른 점이 동양인의 주류 문화는 집단주의적이어서 개인주의 문화의 전통을 가진 서양인과 달리 동양 사람들은 더욱 협동적이고, 집단을 중시여기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정에 더욱 신경을 쓰고, 또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사회적 행동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강의 내용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되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 작업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수강생들이 서로 더 친밀히 알도록 하며, 또한 집단(즉, 조)으로 실험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함으로써 더욱 그 과목에 대한 관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지론 아래 이 강의 시간에 집단작업을 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한 조에 4~5명씩 나뉘어 조별로 실험을 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제물에 대한 점수는 각 조에 부여하는 점수이고, 따라서 그 조에 속하는 학생 모두에게 해당하게 된다. 물론 강의의 성적은 이 과제물의 점수 이외에 개인별 시험점수나 기타 점수 등의 합으로 부여된다. 이와 같은 집단작업과 점수 부여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집단작업에 대해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여 free rider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쁜 점수의 책임을 놓고 서로 비난하는 등, 강의 전체의 분위기를 해칠 지경으로까지 되었다. 그리하

여 보고서는 개인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 요망사항 적기'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지적한 사항이었다. 물론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특히, 학부제 실시로 인해 이전과 달리 전공과목 시간에도 주전공 학생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수전공 학생들도 참여하게 된 점),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한 강의 내용이 무색하게 오늘의 학생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되어감을 일면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집단으로 모여 일을 같이 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보고서를 함께 쓰는 일은 도무지 시간 낭비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혼자 자신의 컴퓨터를 두드려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편한 것이다.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번째 두드러진 변화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바대로 영상문화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 수용, 혹은 더 나아가서 창작욕구가 일반화되고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강의 시간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집단심리학 시간에 학생들은 어떤 집단(실재하는 집단 혹은 소설이나 영화 속의 집단 등)을 소재로 삼아 그 집단에서 나타나는 집단의 심리(즉, 권력의 기반, 형태 및 영향, 지도자 유형, 상호의존의 유형, 갈등의 진전 형태 등)를 분석하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즈음 들어 학생들이 분석하는 집단은 거의 모두 영화 속에 나타나는 집단들이다.

이전에는 자존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나 '파리대왕' 등 소설 속의 집단이 주로 분석 대상이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아예 거의 모든 조가 영화 속의 집단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컬트영화 속의 집단도 드물지 않게 학생들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의 근원은 여러 요인에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구조와 체제 개혁 등의 사회와 정치 문제들이 대학생이라면 마땅히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해야 할 일차적 문제라는, 일면 동질적이던 학생사회의 가치규범이 세계 정세와 국내 정치의 판도 변화와 아울러 무너지고, 좀더 다양한 가치와 인생관이 허용되는 새로운 청년문화의 자유로움과 여유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컴퓨터통신이 해외 연수 기회의 확장 등으로 인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나 가치관이 더욱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롭게 자라나 어렸을 때부터 TV 등의 영상매체를 접한 이즈음 학생들이 정치·사회·경제 문제들보다는 감성과 문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대학생 문화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많은 분들은 요즘 학생들은 진지한 책이나 심각한 책은 도외시하고 가벼운 영화나 만화나 책만으로 소일거리를 삼아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다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또한 사회와 세상에 대한 진지한 고

민은커녕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 못하게 긴 머리를 노랗게 물이나 들이고 다니며 꼴불견이게도 남자가 귀고리나 하고 다니는가 하면 '버릇없게' 강의 시간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음을 개탄한다. 실제로 내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강의 시간에 모자를 쓰고 들어 오기보다는 숫제 강의를 빼먹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또한 일부 대학 사회가 이러한 학생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편승하여 '가볍고 선점적인' 제목과 내용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비난한다. 그러나 한편 다른 분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심지어는 부러워 하기까지 한다. 사회문제와 구조에 대한 고민과 가난,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억눌려 제대로 문화나 감성을 향유하고 추구하며 세련되게 닦을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윗세대에 비해, 출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무엇이든지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추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투철하다 못해 튀는 걸모습과 행동을 보이고 혹은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신세대 대학생들의 당당한 자기 주장에, 창의성과 개방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한 사회의 가능성이 배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대학생 문화의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자든가 혹은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

적인가를 설블리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적응하고 있는가를 보다 공식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대학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절한 대응책과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학생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도 이즈음에는 학생들과의 괴리가 부쩍 느껴져 당혹스럽고, 또한 좀더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강의방식과 교수태도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더 절박하게 하게 된다. 또 위의 '모자'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이러한 보다 급격한 변화에 대해 교수들은

자칫 배타적이고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여 학생들과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와해는 물론 건전한 가치관의 함양이나 전문지식의 전달의 효용성도 위협받게 되는 지경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루 빨리 대학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공식적으로 토론하여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보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문화 주도 세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김혜숙/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아주대 사회과학부 심리학 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귀인과 집단고양귀인에 미치는 영향" 외 다수를 발표하였다.